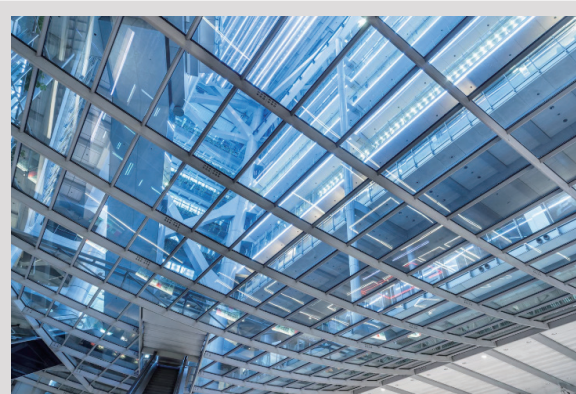


품명	폴리카보네이트	
HS code	3907.40	
관세율(%)	MFN('24)	FTA
	5.8	0



▶ 해당 품목의 對미 수출증감률은 비록 등락이 있으나 '24년 상반기 수출금액은 이전의 연평균 수출액을 넘어서는 금액으로 '24년 6월 기준 전년 대비 450.3%의 수출증감률을 기록함

한국의 연도별 對미 수출동향(HS code 3907.40)

(단위: 천불, %)

연도	수출금액	수출증감률
2019	59,109	-20.2
2020	55,244	-6.5
2021	132,728	140.3
2022	79,632	-40.0
2023	92,224	15.8
2023.6	53,754	7.9
2024.6	295,786	450.3

선정 사유

▶ 가볍고 견고하며 쉽게 파손될 염려가 없어 장기간의 사용이 가능한 폴리카보네이트는 건축 소재나 안경을 비롯한 생활용품 등 일상의 다양한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품목으로 최근 미국 내 한국산 폴리카보네이트 소비 증가로 해당 품목의 對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동 품목을 2분기 수출증가 품목으로 선정함

우리나라 對미  
수출동향  
  
(HS 3907)

▶ 폴리에테르·폴리에스테르(HS 3907)의 對미 수출금액은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겪었으나, '24년도 2분기 기준으로 회복세를 보임. 다만, 세부 품목 “폴리카보 네이트(HS 3907.40)”, “알키드수지(HS 3907.50)”, “불포화 폴리에스테르(HS 3907.91)”의 경우 등락 없이 꾸준히 수출금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

한국의 연도별 對미 수출동향(HS code 3907 세부품목)

(단위 : 천불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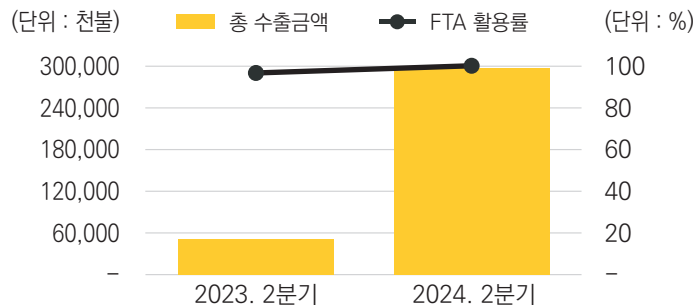
구분	HSK	품목명 총계	수출금액		
			2022년	2023년	2024년 2분기
			1,113,179	806,011	678,769
1	3907.10	폴리아세탈수지	48,703	31,983	18,229
2	3907.21	비스(폴리옥시에틸렌) 메틸포스포네이트	-	-	-
3	3907.29	기타 폴리에테르	211,534	124,254	73,463
4	3907.30	에폭시수지	400,461	197,678	103,933
5	3907.40	폴리카보네이트	79,632	92,224	295,786
6	3907.50	알키드수지	32	160	51
7	3907.61	폴리(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)	209,766	202,706	93,474
8	3907.69	기타 폴리(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)	76,142	58,409	48,388
9	3907.70	폴리(락트산)	141	66	-
10	3907.91	불포화 폴리에스테르	10,921	23,520	9,082
11	3907.99	기타 폴리에스테르	75,847	75,011	36,363

수출금액 및  
FTA 활용현황  
  
(HS 3907.4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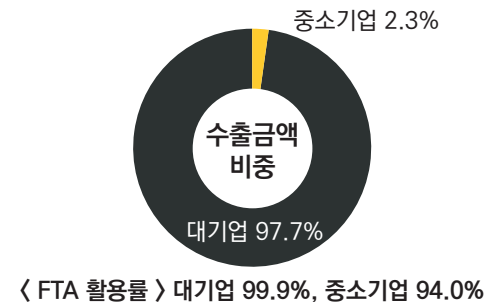
▶ HS 3907.40(폴리카보네이트) 對미 수출금액과 FTA 활용률 모두 증가함  
- FTA 활용률 '23년 2분기 96.3%, '24년 2분기 99.7%로 나타남  
-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(PSR)은 CTH임

▶ '24년 2분기 기준, HS 3907.40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97.7% 중소기업 2.3%임  
- FTA 활용률은 대기업 99.9%, 중소기업 94.0%임

HS 3907.40 對미 수출금액 및 FTA 활용률(2023~2024)



HS 3907.40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(2024년 2분기)



미국 수입 동향

- ▶ '24년 6월 기준 미국의 HS 3907.40의 주요 수입국은 한국, 캐나다, 태국, 벨기에, 멕시코 등의 순으로 나타남
  - 주요 수입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(28.9%), 캐나다(14.9%), 태국(11.5%), 벨기에(9.4%), 멕시코(9.3%), 일본(7.4%), 독일(6.9%), 대만(4.0%) 등의 국가에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음

특이사항

- ▶ 미국의 폴리카보네이트 시장 규모는 약 12억 3천만 달러 수준('24년 기준)에 이르며, COVID-19로 인하여 주춤했던 건설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주요 자재인 폴리카보네이트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 - 폴리카보네이트는 우수한 내열성, 투명성, 내충격성 등의 특성을 가진 자재로 건설업을 비롯하여 전기·전자, 정밀기계, 의료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
- ▶ 하지만 폴리카보네이트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스페놀A(BPA)와 같은 환경호르몬 문제와 대량의 산업폐수 처리 등에 따른 높은 환경비용으로 인해 미국 내 폴리카보네이트 생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고,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폴리카보네이트의 역외 수입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
[미국의 HS 3907.40 수입액]

(단위 : 천불)

2011년	2015년	2019년	2023년
180,346	264,189	372,405	404,832

시사점

- ▶ 선정품목의 한-미 FTA 특혜관세는 0%이며 MFN은 5.8%로 한-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
  - FTA 특혜관세 활용 혜택이 5.8% 있는 품목이며, 주요 수입국 중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FTA를 활용할 수 있음
  - 따라서 관세 혜택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시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
- ▶ 또한 ESG(Environment Social Government), CSR(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) 등 기업의 친환경 책임이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, 우리 기업들 역시 활발한 투자와 연구를 통해 폴리카보네이트의 환경비용을 극복하여 수출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

품명	영상모니터					
HS code	8528.59					
관세율(%)	품목	MFN ('24)	AK	VK	RCEP	
					'23	'24
					'25	
	컬러 영상모니터	12	5	0	10.4	9.6
	단색 영상모니터	10	0	0	0	0



선정 사유

▶ 해당 품목의 對베 수출증감률은 '20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도 등락이 있었으나, '24년 상반기 수출금액은 이전의 연평균 수출액을 넘어서는 금액으로 '24년 6월 기준 전년 대비 636.3%의 수출증감률을 기록함

한국의 연도별 對베 수출동향(HS code 8528.59)

(단위 : 천불, %)

연도	수출금액	수출증감률
2019	6,303	69.1
2020	3,068	-51.3
2021	1,846	-39.8
2022	3,355	81.8
2023	2,537	-24.4
2023.6	1,313	34.8
2024.6	9,668	636.3

▶ 한국산 전자제품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, 베트남의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고급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산 모니터의 對한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동 품목을 2분기 수출증가 품목으로 선정함

▶ '24년 2분기 영상모니터(HS 8528.59)의 對베 수출금액이 크게 증가했으며, 특히 “천연색의 영상모니터(HSK 8528.59-1090)”에 해당하는 품목이 대부분의 수출 금액을 차지하고 있음. 반면, 의료용에 사용되는 영상모니터는 수출이 감소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남

한국의 연도별 對베 수출동향(HS code 8528.59 세부품목)

(단위 : 천불, %)

구분	HSK	품목명	수출금액		
			2022년	2023년	2024년 2분기
		총계	3,355	2,537	9,668
1	8528.59-1010	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(천연색의 것)	48	50	24
2	8528.59-1090	기타(천연색의 것)	2,807	2,177	9,064
3	8528.59-2010	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(흑백이나 단색의 것)	-	-	-
4	8528.59-2090	기타(흑백이나 단색의 것)	500	310	580

우리나라 對베  
수출동향

(HS 8528.5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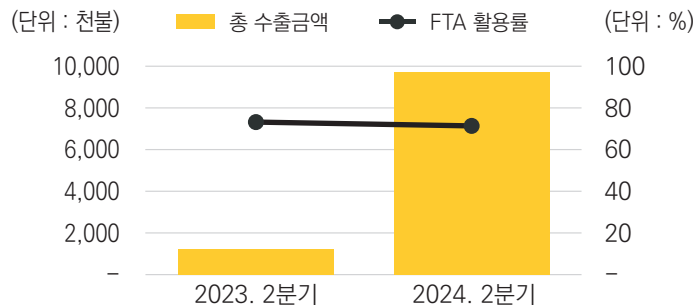
▶ HS 8528.59(기타, 텔레비전·모니터)의 '23년과 '24년의 FTA 활용률은 70%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
 - FTA 활용률 '23년 2분기 73.1%, '24년 2분기 71.3%로 나타남  
 -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(PSR)은 세 협정(베트남, 아세안, RCEP) 모두 CTH or RVC 40%임

▶ '24년 2분기 기준, HS 8528.59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0.5%, 중소기업 99.5%임  
 - FTA 활용률은 대기업 56.5%, 중소기업 71.4%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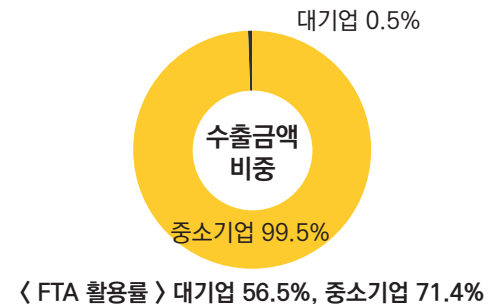
수출금액 및  
FTA 활용현황

(HS 8528.59)

[HS 8528.59의 對베 수출금액 및 FTA활용률(2023~2024)]



[HS 8528.59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(2024년 2분기)]



베트남 수입 동향

- ▶ '23년 기준 베트남의 HS 8528.59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, 일본, 한국, 대만, 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남
  - 주요 수입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(89%)에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, 일본(4.0%), 한국(1.3%), 대만(1.0%), 태국(1.0%) 등의 국가 순으로 수입하고 있음

특이사항

- ▶ 한국 전자기기 제조업체의 다양한 제품군은 베트남에서 매우 높은 신뢰를 얻고 있음
  - 특히, 한국산 텔레비전과 모니터 제품은 베트남 사용자를 위한 인터페이스와 높은 호환성을 제공하며, 이로 인해 한국산 전자기기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고 있음
  - 우리나라 기업들은 베트남 여러 지역에 전자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對베 수요를 충족시키는 주요 공급국으로 자리 잡고 있음
- ▶ 베트남에 수출되는 일부 전자제품은 베트남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에너지 성능 기준(MEPS)을 충족해야 함
  - 베트남 정부는 제품의 안전성, 전자파 적합성(EMC), 에너지 효율성 등에 대한 인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품목은 적용되는 기술 표준을 준수한 후 에너지효율 라벨을 부착하여야 함

〈베트남 VNEEP 규제 개요〉

- 인증명 :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프로그램(VNEEP : Vietnam National Energy Efficiency Program)
- 인증개요
  - 2013년부터 베트남에 수출되는 일부 전기전자제품은 베트남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에너지 성능(MEPS)을 충족해야 하며,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에너지효율 시험을 진행해야 함
  - 이에 따라 베트남에 유통되는 에너지 소비 제품 중 Decision 04/2017/QD-TTg에 따른 규제품목은 품목별 적용되는 기술표준을 만족한 뒤, 에너지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함
- 규제대상 품목

가정용 기기	사무용·상업용 기기
직관형 형광램프, 컴팩트 형광램프, 형광램프용 전자기식 안정기,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, 에어컨, 냉장/냉동고, 가정용 세탁, 전기밥솥, 선풍기, 텔레비전, LED 램프, 축열식 온수기	복사기, 컴퓨터 모니터, 프린터, 상업용 냉장고, 노트북 컴퓨터
산업용 기기	차량
배전용 변압기, 삼상유도전동기	9인승 이하 승용차, 오토바이, 전동자전거

## 시사점

- ▶ 선정품목은 세부 분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, 컬러 영상모니터(HS 8528.59-10)와 단색 영상모니터(HS 8528.59-20)로 구분되며 FTA 특혜관세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
  - 컬러 영상모니터(HS 8528.59-10호)에 해당하는 품목은 특혜관세 0%~9.6%, MFN 12%가 적용되어 FTA 특혜관세 활용 혜택이 최대 12% 있으며, 단색 영상모니터(HS 8528.59.20호)에 해당하는 품목은 특혜관세 0%, MFN 10%가 적용되어 FTA 특혜관세 활용 혜택이 10% 있음
  -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컬러 영상모니터(HS 8528.59-10)는 한-베 FTA가 FTA 활용 혜택이 가장 크며, RCEP의 경우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어 발효 10년차인 2031년 특혜관세율이 0%로 완전 철폐됨
- ▶ 베트남 정부가 요구하는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(MEPS)을 충족해야 하는 전자제품을 수출할 경우, 인증 절차는 현지 수입자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와의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임
  - 즉, 이러한 요건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해 베트남 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성공적인 시장 진출의 핵심임
- ▶ 또한,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,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 시장의 수요를 철저히 분석하고 차별화된 기술과 홍보 활동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함

품명	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				
HS code	8531.10				
관세율(%)	MFN	FTA		RCEP	
		'23	'24	'23	'24
	10	1	0	8	7



선정 사유

▶ 해당 품목의 對중 수출 증감률은 '20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다가, '24년 6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2.2%의 수출증감률을 기록하며 큰 폭의 회복세를 보임

한국의 연도별 對중 수출동향(HS code 8531.10)

(단위: 천불, %)

연도	수출금액	수출증감률
2019	8,287	0.7
2020	4,952	-40.2
2021	3,592	-27.5
2022	3,531	-1.7
2023	3,674	4.0
2023.6	1,355	-17.2
2024.6	3,419	152.2

▶ 중국은 소방산업 시장 규모 세계 1위 국가로, 화재경보기를 비롯한 중국의 스마트 소방산업 트렌드가 부상하는 가운데 해당품목의 對한 수입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동 품목을 2분기 수출증가 품목으로 선정함



우리나라 對中  
수출동향

(HS 8531.10)

▶ 도난·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(HS 8531.10)의 對中 수출금액은 “화재경보기(HSK 8531.10-2000)”와 “그 밖의 신호기기(HSK 8531.10-9000)”가 주요 수출 비중을 차지하며, “화재경보기(HSK 8531.10-2000)”의 경우 수출금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며, “그 밖의 신호기기(HSK 8531.10-9000)”의 경우 2023년 수출금액이 감소하였으나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임

한국 연도별 對中 수출동향(HS code 8531.10 세부품목)

(단위 : 천불, %)

구분	HSK	품목명	수출금액		
			2022년	2023년	2024년 2분기
		총계	3,531	3,674	3,419
1	8531.10-1000	도난경보기	30	134	31
2	8531.10-2000	화재경보기	1,006	1,865	1,364
3	8531.10-3000	가스경보기	17	159	43
4	8531.10-6000	전기식의 벨 또는 사이렌	7	16	13
5	8531.10-9000	그 밖의 신호기기	2,471	1,500	1,96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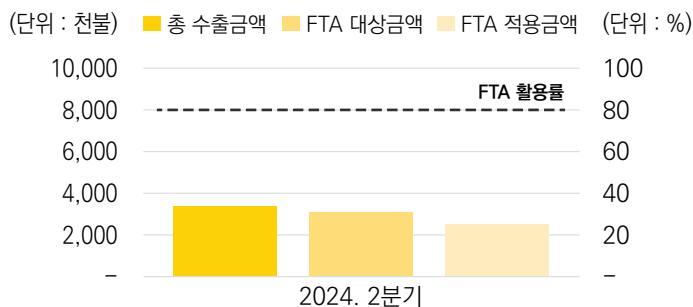
수출금액 및  
FTA 활용현황

(HS 8531.1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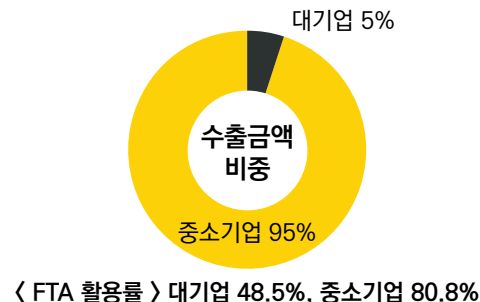
▶ HS 8531.10(도난·화재경보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) 對中 수출금액과 FTA 활용률 모두 증가함 추후확인  
 - FTA 활용률 '24년 2분기 80.8%로 나타남  
 -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(PSR)은 한-중 FTA는 CTH or RVC 40%, RCEP은 CTSH or RVC 40%임

▶ '24년 2분기 기준, HS 8531.10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5%, 중소기업 95%임  
 - FTA 활용률은 대기업 48.5%, 중소기업 80.8%임

[HS 8531.10 對中 수출금액 및 FTA 활용률(2023~2024)]



[HS 8531.10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(2024년 2분기)]



## 중국 수입 동향

- ▶ '24년 6월 기준 중국의 HS 8531.10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, 말레이시아, 스웨덴, 노르웨이, 영국 등의 순으로 나타남
  - 주요 수입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(23.6%), 말레이시아(13.5%), 스웨덴(11.7%), 노르웨이(7.8%), 영국(6.0%), 한국(4.7%) 등의 국가에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음

## 특이사항

- ▶ 2022년 중국 국무원 안전위원회가 소방 사업과 관련된 《제14차 5개년 계획》을 발표함에 따라 스마트 소방산업 법률 체계가 강화되고, 화재 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
  - 인공지능, 빅데이터,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소방기술은 스마트 시티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중국의 90% 이상 도시에서 스마트 시티 구축과 연계된 스마트 소방 건설 계획을 발표함, 이로 인해 소방산업 관련 제품의 수출 잠재력이 높아짐
- ▶ 소방제품의 경우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 규정에 따라 공안부 산하 소방제품 합격평가센터에서 발급하는 강제성 상품 인증(CCCF 인증\*)을 취득해야만 제조 및 유통이 가능함
  - CCCF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중국 내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벌금이 부과됨
  - 다만, 2019년 4월부터 특정용도(기술 연구 및 시험에 필요한 샘플, 보수의 목적으로 필요한 부품, 공장 라인에 필요한 부품 등 상업적 판매용이 아닌 한정적인 용도)에 사용되는 수입 소방 제품에 대해서는 강제 인증이 면제됨
  - \* CCCF 인증(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for Fire Products)은 중국 내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특정 소방 관련 제품에 대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증 제도

## 시사점

- ▶ 선정품목의 한-중 FTA 특혜관세는 0%이며 MFN은 10%로 한-중 FTA 특혜관세율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
  - FTA 특혜관세 활용 혜택이 10% 있는 품목이며, 주요 수입국 중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FTA를 활용할 수 있음
- ▶ 중국 내 공공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, 스마트 시티 사업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소방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선정품목에 대한 수요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
  - 화재경보기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은 중국의 강화되는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함

품명	차·마태의 조제품				
HS code	2101.20				
관세율(%)	품목	MFN ('24)	RCEP		
			'23	'24	'25
	인스턴트티	10	0	0	0
	기타	8	6.5	5.8	5.1



선정 사유

▶ 해당 품목의 對일 수출증감률은 '19년부터 '22년까지 등락을 반복하다가 '23년도에 전년 대비 325.0%로 크게 증가했으며, '24년 6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58.9%의 수출증감률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함

한국의 연도별 對일 수출동향(HS code 2101.20)

(단위 : 천불, %)

연도	수출금액	수출증감률
2019	2,110	-20.7
2020	1,464	-30.6
2021	3,429	134.2
2022	1,618	-52.8
2023	6,871	325.0
2023.6	1,665	99.6
2024.6	4,310	158.9

▶ 일본의 전통적인 차(tea) 문화로 인해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며, 일본 내에서 간편한 인스턴트 차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품목의 對일 수입이 증가하여 동 품목을 2분기 수출증가 품목으로 선정함

- '23년 기준 일본 차 시장규모는 약 5조 원에 달하며, 지난 5년(2018-22년)간 평균 5.1조 원의 꾸준한 시장 규모를 유지해옴

우리나라 對日  
수출동향

(HS 2101.20)

▶ 차·마태의 조제품(HS 2101.20)의 對日 수출금액은 '23년도 이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“설탕·레몬이나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(HSK 2101.20-1000)”이 주요 수출 비중을 차지함. 반면, 그 이외의 품목은 수출이 감소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남

한국의 연도별 對日 수출동향(HS code 2101.20 세부품목)

(단위 : 천불, %)

구분	HSK	품목명	수출금액		
			2022년	2023년	2024년 2분기
		총계	1,618	6,871	4,310
1	2101.20-1000	설탕·레몬이나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	1,095	6,067	4,168
2	2101.20-9011	기타(곡물을 함유한 티백 포장의 것)	164	89	63
3	2101.20-9019	기타(곡물을 함유한 기타 포장의 것)	2	20	4
4	2021.20-9090	기타	357	695	75

수출금액 및  
FTA 활용현황

(HS 2101.2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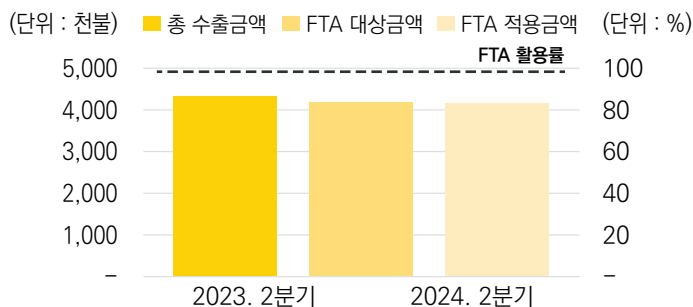
▶ HS 2101.20(차·마태의 조제품) 對중 수출금액과 FTA 활용률은 다음과 같음

- FTA 활용률 '24년 2분기 99.7%로 나타남
-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(PSR)은 CC 또는 RVC 40%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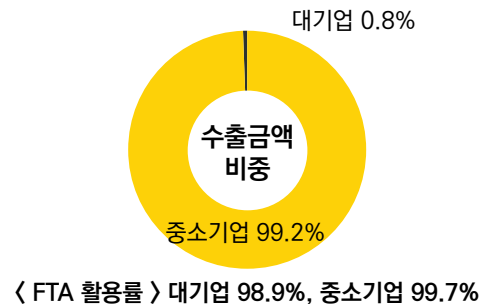
▶ '24년 2분기 기준, HS 2101.20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0.8%, 중소기업 99.2%임

- FTA 활용률은 대기업 98.9%, 중소기업 99.7%임

[HS 2101.20의 對日 수출금액 및 FTA활용률(2023~2024)]



[HS 2101.20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(2024년 2분기)]



일본 수입 동향

- ▶ '24년 6월 기준 일본의 HS 2101.20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, 한국, 인도, 말레이시아, 스리랑카 등의 순으로 나타남
  - 주요 수입국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(41.1%), 한국(25.0%), 인도(12.9%), 말레이시아(5.2%), 스리랑카(4.0%) 등의 국가에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음

특이사항

- ▶ 일본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차의 형태를 대신하여, 편리함을 제공하는 스틱 형태나 티백 형태의 차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음
  - 전통적인 잎차와 달리 편리함을 갖춘 인스턴트 및 RTD(Ready To Drink)차 등이 상쾌함, 스트레스 해소, 건강상 이점까지 겸비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음
  - 또한, 일본의 차 문화와 결합된 다양한 맛의 과일차가 출시되면서, 전통적인 차에 익숙한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젊은 층에서도 수요가 증가함
- ▶ 일본 내에서 '유기농, 오가닉'으로 표시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JAS(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) 인증 취득이 필요함
  - 일본 농림수산부에서 규정하는 식품의 품질 성분 인증 제도이며, 한국 제품의 경우 JAS 마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유기식품 등록인증기관으로부터 제조업자가 직접 인증을 취득해야 함
  - JAS 인증 외에 기타 식품 생산 안전 인증으로는 ISO 22000, IFS 등이 있으며 해당 인증사항들은 필수가 아닌 선택 인증사항임

시사점

- ▶ 선정품목의 RCEP(한-일) 특혜관세는 0% 또는 5.8%이며 MFN은 10% 또는 8%로 RCEP 특혜관세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
  - 인스턴트 티(HS 2101.20-110)에 해당하는 품목은 FTA 특혜관세 활용 혜택이 10% 있으며, 그 외의 품목(HS 2101.20-120)은 FTA 특혜관세 활용 혜택이 2.2% 있음
  - 일본으로 주요하게 수출하는 품목은 상기 기술한 두 품목으로, 두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세부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수출 시 정확한 HS code 및 세율 확인이 필요함
- ▶ 일본 내에서 편리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믹스 앤 스틱 형태의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,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간편한 형태의 차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함
  - 차의 소비가 간편식 형태로 변화하고 있지만, 전통 침출차의 특성인 유기농과 비가공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품 포장 및 성분 표시에서 JAS, IFS 등의 유기농 및 제조공정 인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함
- ▶ 더불어 일본 소비자들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시장을 선호하는 추세이므로, 수출 기업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시장 진출을 고려해야 함